

취업자 ↑ 사장님 ↓ ...고용지표는 '봄바람' 현장은 '칼바람'

호남지방데이터청 '2월 지역 고용동향'

2월 광주·전남 취업자 수 175만4천명
전년 동월비 6천명 증가 '양적 성장'
자영업자 2만2천명 ↓ ·실업자 1만명 ↑

지역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고용시장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는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만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호남데이터청이 발표한 '2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역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175만4천명(광주 76만8천명·전남 98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천명 증가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8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아 고용 회복을 제각각인 부족하다 평가가 나온다.

연령대별 고용 상황을 반영하는 15-64세 고용률은 광주가 66.3%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상승했고 전남은 69.7%로 같은 기간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광주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1만2천명(14.1%) 증가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도 6천명(1.8%) 늘어 일부 업종에서 고용 개선이 나타났다.

전남 역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2만1천명(6.3%) 늘어났으며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1만4천명(19.8%), 1만1천명(10.3%) 증가했다.

반면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는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2월 청년 실업률 5년만에 최고
비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41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4천명 늘어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청년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10.1%) 이후 같은 달 기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광주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8천명(5.5%) 감소했고 제조업도 4천명(3.8%) 줄어드는 등 주요 산업에서 위축이 나타났다. 농림어업 역시 2천명(13.8%) 감소했다.
전남 지역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2만3천명(11.7%)이 줄어든 데 이어 농림어업도 1만5천명(7.7%) 감소했으며 건설업도 7천명(7.9%) 줄면서 핵심 업종 전반의 고용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역 자영업자 수는 41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2천명 줄어 들었다.
이 가운데 광주는 6천명(4.2%), 전남은 1만6천명(6.4%) 감소해 자영업 전반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업자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에서는 실업자 수가 2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3천명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3.7%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실업자 수가 4만명으로 7천명 늘어나고 실업률은 3.9%로 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태호 기자

“지역 인재, 지역 정착·성장하는 구조 만든다”

광주RISE센터·시민사회지원센터 MOU
시민 공익활동 ↑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광주 대학교육혁신센터(광주RISE센터)는 18일 “전남 광주 시민사회지원센터와 시민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지역사회가 연결되는 통합형 지역혁신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반 협약은 민·관·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인재양성 취·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시민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인재양성 취·창업 정주 생태계 구축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교육·

김보현 광주RISE센터장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훈 시민사회지원센터장은 “시민사회와 대학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경총, 김병원 전 농협회장 초청 금요조찬 포럼

내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매력이 경쟁력이다’ 주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0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을 초청해 ‘매력이 경쟁력이다’는 주제로 1715회 금요조찬 포럼을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부로 산다는 것은 ▲삶을 규정하는 3요소 ▲엄마 독립선언 ▲농곡진 ▲농촌은 지금 ▲농정 대전환 ▲건강한 사회의 3요소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나주 출신으로 제23대 농협중앙회장을 지낸 농업인 출신 금융·기업인이다.
또한 1978년 농협 입사 후 남평농협 전무, 제13·14·15대 남평농협 조합장을 역임했다.

광주경총은 현재 907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고 국내 최장수 조찬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 경제단체로 저명인사 및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CEO와 지역 노사민정,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 있어 회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농협중앙회 이사(8년), NH 무역 대표이사, 농협양곡 대표이사, 전남대 겸임교수, 한국벤처농업대학 교수,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제 실력이나 스펙만으로는 사람·조직·지역·국가가 선택받기 어렵고 끝림(아트랙션) 자체가 생존과 성장의 힘이 된다”며 “기능·스펙을 넘어 함께하고 싶게 만드는 힘까지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 그게 현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강연은 ▲매력이란 ▲인생 100세 시대 ▲매력적인 인생 100년 ▲꿈 실현의 3가지 원동

한편, 금요조찬포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사입부(008-9942)로 문의하면 된다. /임재만 기자

광주경제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최대 80%...450명 선착순 모집
택배·화물차주까지 대상자 확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18일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화물차주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특히 지난해 배달노동자를 중심으로 추진했

던 사업을 올해는 택배노동자와 화물차주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플랫폼노동자로,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모집 인원은 배달노동자 300명, 택배노동자 100명, 화물차주 50명이다.

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확인해 본인 부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2회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

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플랫폼노동자는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플랫폼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가득한 무안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무안군** 광고문의 : 062)650-2099